



무등산 정상에 내려앉은 눈 13일 무등산 정상이 지난 주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 광주·전남 지역에 또다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금만 부지런하면 일회용품 줄일 수 있어요”

광주환경연합, 3개월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SNS에 체험기...이달말 시상식

“설거지가 귀찮긴 하지만 오늘은 사무실 앞 카페에서 제 텀블러(보온컵)에 커피를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갈 때 밀폐용기를 챙겨갔어요.”, “보자기에 도시락을 챙겨 소풍을 가니 아이들이 좋아해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광주에서 3개월 동안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 시민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9월15일부터 3달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도입한 환경연합의 브랜드 사업으로, 전국에서 일회용품 소비가 많은 광주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지난 9월5일부터 10일간 모집한 시민도전단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20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같은달 14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은 환경연합이 증정한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장바구니·손수건)와 ‘도전단 배지’를 증정하며 도전 의지를 다졌다. 배지에 적힌 ‘NO 바스락’ 문구는 비닐봉지가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없애보자는 의지를 대변했다.

도전단들은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안 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 쓰기 등 단계별로 사용금지 물품을 늘려나갔다.

1주일마다 환경연합 SNS 페이스북 페이지에 활동 수기를 올리며 활동 상황을 알리고 팁을 공유했다.

문수민 도전자는 지난 9월 “설거지가 귀찮고 자주 잃어버리는 등 평소 가지고 다니지 않던 보틀(원기증 모양 물통)을 사용하려니 힘들다”며 “이번 한 주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은 성공적, 함께 하자는 마음을 담아 친구에게도 보틀을 선물했다”고 글을 올렸다.

허신량 도전자는 고등어 토막을 담은 밀폐용기 사진과 함께 “솔직히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생선과 고기를 살 때 따로 통을 챙겨간단다”며 “냉동 보관할 음식과 재

로도 예전엔 일회용 비닐백을 편하게 썼는데 요즘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실로 넣는다”고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가 쉽지는 않았던 듯 도전 첫 30일간 하루에 1건꼴로 올라왔던 활동 수기는 점점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오는 15일 도전이 끝나더라도 계속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주부 임여훈(여·42)씨는 “지난 3달간 비닐장갑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음식을 하던가 마트에 갈 때 보자기나 장바구니를 들고 갔다”며 “조금만 부지런하면 일회용품이 없더라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



정육점 갈 때 밀폐용기 지참



비닐 대신 보자기에 쓴 도시락

다. 아이들과 가게 주인들에게 일회용품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번달 안으로 시상식을 열고 가장 열심히 활동한 도전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매년 새로운 일회용품 안쓰기 도전단을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새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 광주의 일회용컵 1주일 사용량 3.88개로 전국 평균 3.36개로 높았다. 1회용 그릇·접시는 1주일 0.97개(전국 0.81개), 1회용 비닐봉투는 3.25개(전국 2.90개) 등으로 조사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하루 24명 꼴 낙상...한달새 1009명 다쳐

연령 높을수록 입원 많아...65세 이상은 2주 넘게 입원

전남소방본부는 “전남지역에서 지난 1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1009명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020명이 같은 사고로 병원에 찾았다. 겨울에 접어들며 하루에 24명꼴로 넘어져 다치고 있는 것이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5년 낙상 입원환자는 28만4000여명으로 2011년(24만5000명)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12만4000여명으로 2011년(9만4000명)과 비교

해 32% 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명당)은 증가했고, 60~69세 연령군 이후부터는 급격히 늘어 80세 이상에서는 60대보다 약 4배 많았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낙상 입원환자 중 남자는 3만1954명, 여자는 9만174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낙상 입원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3배나 많았다. 65세 입원환자의 절반은 2주 넘게 입원했다.

2015년 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가장 높

은 계절은 겨울로 그의 계절보다 11%포인트 높았고 겨울에는 ‘길·간선도로’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길을 나서기 전 물, 눈, 얼음 등 확인 ▲경사진 도로·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 빼기 등을 제시했다.

또 넘어졌을 경우에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야 하며,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돼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청소 또는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해질 03:32
해짐 17:21 달짐 15:03

한파 일시 소강
15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니 외출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6	보성	맑음	-3/6
목포	맑음	-4/4	순천	맑음	-4/7
여수	맑음	-3/6	영광	맑음	-8/3
나주	맑음	-7/4	진도	맑음	-4/5
완도	맑음	-3/6	전주	맑음	-8/3
구례	맑음	-7/5	군산	맑음	-8/3
강진	맑음	-5/6	남원	맑음	-11/4
해남	맑음	-6/5	축산도	맑음	2/5
장성	맑음	-6/4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남부	북~북동	1.0~2.0	북~북동	0.5~2.0
남해	서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0.5~2.0
남해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생활지수

매우높음	니출중	매우높음	보통
감기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7	11:43
	17:05	23:49
여수	00:15	06:55
	12:48	18:47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	☁	☁	☀	☀	☀	☀
-3/6	0/4	-4/2	-3/6	-2/5	-3/5	0/7

광주교육청, 광일고 신입생 4학급 승인

평준화추진위 철야농성 해제

광주시교육청은 13일 비평준화 고교인 광일고의 신입생 모집 규모를 올해와 같이 4학급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광일고 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에서 가배정 학급 수 및 대안학교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가배정 학급 수를 기존 2학급에서 4학급으로 해달라고 추진위가 요구한 안을 받아들였다.

시교육청은 애초 2018학년도 광일고

신입생 모집규모를 기존 4학급에서 2학급으로 축소, 승인했었다.

다만 비평준화 고교는 학생의 지원과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공동학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학생 모집은 해당 학교 측이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광일고 대안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배정 학급 수 증설과 대안학교 무효화 등을 요구해온 광일고 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철야농성을 해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인사혁신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인사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0년까지 공용차량 감축 계획과 운전원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올해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조사한

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인사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심사와 현지실사·실적 검증을 통해 전국 14곳의 우수사례기관을 선정했다.

장항국 시교육감은 “급격한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





(주) 송도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분양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